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25. 자기가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듯이, 자기가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게 된다. 주님과 우리도 그러하다.

26. 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구해지지도 않는다.

27. 진정 사랑하게 되면, 누가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좋아서 구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야 좋기 때문이다. 주님께도 그리해야 된다.

28.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리라.” 하심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29. 구하지 않는 자는 실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30. 주님은 주님께 구하지 않는 자를 보시고,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 빈 그물만 건지듯이 실망하신다.

31. 주님을 진정 온전히 사랑하면서 구하여라. 그러면 바로 받게 된다.

32. 조건을 걸고 구하여라.

33. 주님은 없어서 못 주지 않으신다. 구하지 않아서 못 주신다.

34. 주님은 없으면 작게라도 주시고, 후에 크게 주신다.

35. 구할 때는 한두 번 구하고 말지 말고, 오래 구해야 된다. 총 쏘듯이 한 번 ‘빵’이 아니다. 장소를 정해 놓고서 걸어가든지, 차로 가든지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36. 과일즙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즙을 짜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구하는 기간, 즉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37. ‘기도하는 기간’은 과일즙을 먹기 위해 짜는 시간과 같다. 과일에서 즙이 다 나올 때까지 짜듯이, 주님이 주실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3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38. 주님이 자연 계시를 보이시는 것은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이다. ‘그같이 하면 된다.’ 함이다. (고로 기도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며, 과일에서 과일즙을 짜내는 시간을 자연 계시로 보여 주셨다.)

39.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간접적인 답안지를 준 것이다.

40.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손으로나 기계에 넣고 짜듯이, 두 손을 모으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모으고 주님께 간절히 힘껏 짜면서 구하는 것이다.

41. 과일은 짜야 즙이 나온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울고 짜야 과일즙이 나오듯 주님이 주신다. 과일은 손으로 짜고 기계로 짠다. 우리가 얻을 것은 기도함으로 마음·정신·생각으로 짜는 것이다.

42. 입으로 과일을 먹듯이 주님께 쉽게 구하면, 정말 얻기 어렵다.

43. 사과, 포도 등 과일을 손에 넣고 힘껏 짜야 즙이 나오듯, 주님을 꼭 붙잡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서 구하여 짜내야 된다.

44. 구하는 것도 술법이다.

45. 노동해서 원리 원칙으로 얻으려면 인생 늙고 골병든다. 그 힘을 주님께 구

하는 데 쓰면, 그 힘의 반이나 3분의 1만 가지고 써도 얻게 된다. 고로 시간을 벌고, 일찍 얻고, 청춘이 늙기 전에 얻어서 쓰고, 갈 길을 가며 희망을 누린다.

46.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하면 초고속으로 얻는다.

47. ‘사랑’은 초고속이다. 빛이다.

48.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가지고 계신다. 고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해야 쉽게 주신다.